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에 관한 연구

채혜숙[†]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Oriental Spirit Detectable in Modern Fashion Style

Hye-Sook Chae[†] · Keum-Su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1. 22. 접수/2008. 2. 23. 채택)

Abstract

A midst the tendency in an attempt to rehabilitate the coexistence of values in Oriental and Western cultures, along with centripetal attention through reincarnation of the Oriental culture, the modern fashion trend is also inclusive of such Oriental flavors even in the opposite Western fashion icons with an outlook for futuristic alternative. In this regard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ental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 a more profound and right manner by evaluating its spirituality and formativeness through analytical survey on preliminary literatures, whose key words are as follows; First, heterogeneity inclusive of the Oriental comprehensiveness through non-periodic chaos; second, imperfection in pursue of perfection through non-perfection; third, asymmetry caused by polarized historicity together with agility in the Oriental costumes; fourth, simplicity bridging into religious naught, and; fifth, spatial comfortability shrouded by loose design. As a result, the study demonstrates that Oriental sensitivity implicative at the modern fashion, prior to its formativeness, shed out a clue of the Oriental profound spirits in its fashion style.

Key words : Heterogeneity imperfection, Asymmetry, Simplicity, Space

I. 서 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美)의식과 내면 세계를 나타내는 복식(服飾)은 그 시대와 사회의 정신 문화의 한 표본으로서 미적 가치를 지닌다.¹⁾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후로 현대 사회가 다양한 생활 방식과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패션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온 복식은 이제 그 기능적 차원을 넘어 예술적 차원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급격하고 다채롭게

전개 되어오고 있다. 더욱이 세계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감성과 기호에 변화가 나타내게 되었고 보다 더 신선하고 다른 양상의 전개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정보시대의 대중 사회가 갖는 문화는 세계화(globalisation) 현상에 따른 다양성의 영향으로 각 지역 고유의 문화들이 서로 융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원주의(Pluralism) 또는 다문화주의로도 표현된다. 다문화주의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를 존중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Hye-Sook Chae

E-mail: hyesoog67@hanmail.net

또한 서구 문화의 주변에 위치해 있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제자리 찾기를 통한 동·서문화의 공존도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주의의 일환이라 하겠다.²⁾

따라서 동양적 가치관은 현대적 삶의 양식 안에서 또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의 동 7양적 특성은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로 나타나 서양 패션의 주요 주제로 또는 미래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동양에 관한 정의를 내려보고

둘째, 현대 패션에 내재된 동양적 특성의 정신성을 살펴보고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의 조형성에 관해 고찰 해 봄으로서 동양적 특성을 알아 본다.

연구 범위 및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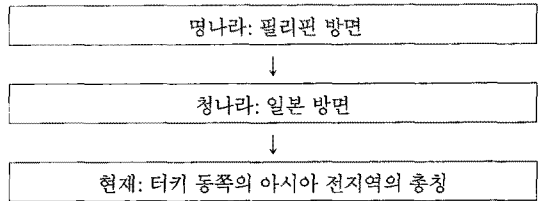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 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위하여 일반 서적과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위해 외국 패션서적 콜레지오니(Collezioni), 패션뉴스(Fashion News), 컬렉션(Collections), 모드지(Mode et Mode)등 각종 패션 서적과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이 반영 되었다고 생각되는 패션 사진 300컷을 모아 객관성을 위해 패션 관련 연구자 10여 명이 논문의 주제와 부합되는 사진 25컷을 선택 하였고 연구 범위로는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서구에 동양에 대한 관심으로 동양의 철학이 전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정한다.

II. 일반적 고찰

1. 동양의 개념

동양은 사전적 의미로는 세계를 동서로 나누어 그 동반(東半)을 가리키는 말로 구체적으로는 터키의 동쪽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 최근의 통념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실제적 범위가 시대나 쓰는 사람에 따라 달랐다. 중국 명(明)나라 때 인도양 항로가 열리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인도 방면을 서양이라 불렀고, 이에 대해 필리핀 방면을 동양이라 부른데에서 비롯되어, 유럽 사람들이 내항하고 부터는 유럽을 대서양(大西洋)이라고 불렀다. 청

<표 1> 동양의 개념 변천사



나라때에는 유럽을 서양, 일본을 동양이라고 부른적도 있었다. 그 후 중국인의 지리적 지식의 확대와 서양인의 아시아 진출에 따라 동양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화했다. 현재 동양은 서양(유럽)에 대응하는 말로, 대체로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지역의 총칭으로 보는 것이 아시아인의 일반적 개념이다. 유럽에서 동양에 해당되는 말은 오리엔트로 이것은 서(西) 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을 가리키고, 한국및 중국·일본 등을 특히 극동(Far East)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 넓은 의미의 동양에는 극동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과 유럽인의 오리엔트³⁾까지 포함한다.

2. 동양 관련 용어 정의

서양 복식에 동양적인 요소를 도입하거나 새롭게 재현한 복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에스닉(Ethnic), 오리엔탈(Oriental), 젠 스타일(Zen Style) 포클로어(Folklore), 아시아(Asia), 이그조틱(Exotic)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는 서로 일치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모든 문화간의 전파 혹은 변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표현 주체로서의 서양 중심적 관점이 배어있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용어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에스닉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의 특성다운, 민족스러운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으로 에스닉 양식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식, 민족의 풍, 또는 민족 특유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에스닉 양식은 인종과 신체적 요인 등에 따른 민족 집단이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이 주제가 되어 현대 디자인 이미지로 응용되며 표현되는 양식⁴⁾이다.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예술상의 한 풍조로 나타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서양의 문화 속에 그들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동양 취미가 등장할 때 불리워진 용어로 동방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題材)로 삼아⁵⁾ 나타난 동방취미(東方趣味),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하며, 특히 근세 유럽에 있어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 취미(Exoticism)를 대표하는 것이었다.⁶⁾

‘젠(Zen)’이라는 것은 선(禪)의 서양식 발음이며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바라본 것으로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개인의 자각과 명상을 강조하는 불교 학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선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일본에서 집대성된 것으로 이른바 동양 정신사상의 한 핵으로 작용하는 유·불·도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그 사상적 구조는 불교와 도가를 바탕으로 성립 되었으며 일본에서 집대성된 것인 만류 논리 구조의 틀을 일본적인 특유한 미적 이념으로 발전 시켜 많은 문화를 창조 해왔다. 따라서, 무(無)에서 시작하는 것이 선의 본질로서⁸⁾ 극도로 절제된 라인(line), 완벽한 기능성 가운데 ‘미어있음’의 여유를 가진 스타일⁹⁾을 젠 스타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포클로어(Foklore)는 ‘민속, 민간 전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패션에서 논할 때는 민속풍 패션으로서 주로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문화권의 민속 의상을 의미하며 유럽의 농민, 인디언 의상 등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표현한 패션을 가리킨다.¹⁰⁾

아시아는 동반구의 북부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동부 및 중부)에 해당하는 대륙부와 주변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인도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은 우랄 산맥·카스피해(海)·카스카스 산맥·흑해(黑海)·지중해로 유럽과, 또 지중해·수에즈 운하·홍해·인도양으로 아프리카와 접한다. 또한 아시아는 북아시아·중앙아시아·동아시아·동

남아시아·남아시아·서아시아의 6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 지역은 지형·기후등 풍토적 조건이 매우 달라서 다종다양하다.¹¹⁾ 아시아의 미적 가치를 연구하는 선행 연구중¹²⁾에는 중동·인도·한국·중국·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그조틱(Exotic)에 있어 채금석은¹³⁾ 이국취향에 있어 1970년대 이후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양식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특성으로 그간의 서구 문화의 국제적인 지배로 인한 국제화된 모더니즘에 반하여 민속복이나 소외된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의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을 통해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과 인간 본능에 대한 관심을 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그조틱은 낯설고 색다른 취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미술 공예품, 복장 등의 양식과 분위기에 쓰인다. 패션에서 보면 외국의 풍속이 반영된 의상이거나 옷맵시에 이국적인 무드가 느껴질 때 또는 그런 경향을 추구하는 디자인 발상을 의미한다. 즉,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이그조틱은 서양 중심의 현대 복식에 비 서양지역의 ‘민속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¹⁵⁾

동양과 관련한 용어들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결과 포클로어(Foklore)를 제외한 각 용어마다 특색과 서로간의 미세한 차이를 이루지만 전반적으로 서로의 범주 간에 교합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동양은 서구에서 지칭하는 오리엔탈에 더 가까운 쪽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머지 용어들에 관해서도 동양과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동양이 이러한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지므로 포클로어(Foklore)를 제외한 동양과 관련한 용어의 범주들도 같은 맥락에서 동양의 특성에 포함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동양과 관련한 패션 용어를 조계연의 선

<표 2> 동양 관련 패션 용어의 의미 비교

용어	사전적 의미	패션에서의 의미
오리엔탈(Oriental)	동양의, 동양적인	비 기독교권 국가의 복식 요소들을 서양 복식에 차용 또는 재 배치
에스닉(Ethnic)	민족의, 인종의	유럽이외의 여러 나라의 민속의상에서 영감 얻은 패션
젠스타일(Zen Style)	선의 서양식 발음, 자각과 명상	주로 일본의 미니멀리즘과 자연주의적 경향과의 영합
포클로어(Foklore)	민속, 민간전승	유럽 및 각지역의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의 패션
아시아(Asia)	유라시아 대륙의 중동부	주로 한국중국일본적인 요소가 가미된 패션
이그조틱(Exotic)	이국적인, 외국의	노스텔직에서 비롯된 과거에 대한 향수, 비서구지역의 미속의상에서 영감 받은 스타일

행 연구를 참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

1. 정신적 특성

동양 패션의 정신성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 즉 이국성과 민족성¹⁶⁾으로 풀이될 수 있다.

1) 이국성

이국성에 있어는, 어느 민족이든 온전한 단일 인종으로 형성된 민족은 없다. 어느 민족이든 다른 요소가 섞여 있어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다만 거기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언제든지 우세하고 뚜렷하게 항상 지배적 지위에 있어 다른 요소를 융합¹⁷⁾해온 것 뿐이다.

민족은 한 지역에서는 옛날부터의 습관을 지키고 존속하고 있는 것이 본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원인과 계기로 인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전쟁이 계기가 된 민족이동도 있다. 정복자의 의복이 토착민족의 의복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두 민족의 의복이 혼합된 새로운 의복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를 획득한 정복자도 그 지역의 환경, 풍토, 기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의복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민족 정복의 결과, 민족은 순수성을 잃고 혼혈화 되어 가며 의복도 혼합되어 이 문화(異文化)와 접촉하고, 새로운 침입에 의해 순수한 민족적인 의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인종이 달라도 풍토와 습관에 융화되어가는 것은 가능해, 이문화로서 대립되어 만나는 두 민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풍속을 형성¹⁸⁾해 나간다.

한편 예술가들은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또는 민족적인 것에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비유럽적인 것을 동경하고 동양의 정신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비유럽 문명 세계에의 동경은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위시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학문적 연구로 이어졌고,

나아가 단순한 자연 상태의 삶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18세기경 낭만주의 시대에는 유럽 각지의 상류계급 사이에서 이국 취향이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는 시느와즈리(Chinoiserie-중국취향), 혹은 튀르크리(Turquerie-터키취향) 이라고 하여 미술, 음악 등에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영국인들의 프랑스풍에 대한관심이나 동방과의 직접적인 교류로 부각되기 시작한 오리엔탈리즘은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향¹⁹⁾을 대표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현대패션은 '다른' 패션(전통의상, 이전의 패션룩, 하위문화와 '이국적'이라 여겨지는 다른 문화들을 포함한)으로부터 '이국적인' 테크닉을 차용해 오고 있다.

2) 민족성

민족성에 있어 민족복식과 민족복식과는 용어상에 엄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민족(nation)은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고 동일한 역사적 운명과 문화와 전통, 특히 언어, 종교를 공유하는 사회적 공동체를 말하는데, 민족은 한 지역에서 옛날부터의 습관을 지키고 존속하고 있는 것이 본래 모습이다

"민족적"이라 하는 것은 민족의 특성(성격)다운, 민족스러운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에스닉 양식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식, 민족의 풍(風), 또는 민족 특유의 양식²¹⁾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적 양식은 인종에 따른 신체적 요인과 시대적인 역사적 요인, 풍습과 전통 등의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재료, 기법적 요인 등에 따르고 있다. 또한, 민족 집단이나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 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이 주제가 되어 현대 디자인 이미지로 응용되며, 표현되는 양식이다. 따라서 민족의 문화, 전통, 습관 등에 따라 구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2. 조형적 특성

이와같이 동양적 패션은 서양 패션과의 질층적인

<표 3> 동양의 정신적 특성

정신적 특성	정신적 특성에 다른 의미
이국성	전통의상, 이전의 패션룩, 하위문화와 '이국적'이라 여겨지는 다른 문화들을 포함한 것으로부터의 '이국적인' 테크닉
민족성	민족적 양식, 민족의 풍(風), 또는 민족 특유의 양식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표출되고 있으며 본 논문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여러 선행 연구를 참조로 동양의 전반적 특성을 다섯 가지로 도출하여 정리해 보았다. 먼저 채금석²²⁾의 선행연구에서는 동양적 특성을 단순미, 빈곤미, 불균형의 미, 모호성으로 나누고 있으며, 임지영²³⁾은 각각 일체성, 불균제성, 빈곤성, 자연성으로 분석하였고, 조재연²⁴⁾은 장식적 특성으로 과장성, 공간성, 중첩성, 관능성, 상징성, 비장식적 특성으로 단순성, 간소성, 평면성, 개방성으로 나누었고 이상례의 선행 연구에서는 평면형과 개방형, 겹쳐입기와 홀입기, 비대칭과 대칭등으로 나누었다. 이혜현은 카오스 이론을 전제로 동양적 패션을 비 예측성, 불안정성, 자기유사성, 공간성, 비평형성으로 나누었다. 고명신은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동양적 이미지를 내재적특성으로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탈구성, 불확정성 외재적 특성으로 노출, 파괴, 빈곤, 분해, 분석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선행 연구에서²⁵⁾는 조형적 특성으로 면적 활용의 여유성, 단순 평면성, 자연 친화성, 색채의 절제성 등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섯 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비균제성, 둘째 불완전성, 셋째 불균형성, 넷째 단순성, 다섯째 공간성으로 도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실물 사진 자료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동양의 패션 철학이 Zen을 통하여 서양에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동·서양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객관성을 위하여 연구원 10여명이 동양적인 면이 가미된 300컷의 사진 자료 중에서 5인 이상 동조한 1990년대 사진 15컷과 2000년대 사진 10컷 중 시대별·특성별로 1990년대 각각 3컷, 2000년대 각 2컷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밝혀둔다. <표 4>에서는 다섯 가지 특성이 도출되게 된 다음 선행 연구의 특성들을 정리하여 본다.

1) 비균제성

불균제성은 완전성을 초월한 완전 이상의 불균제의 미를 표현한 내적인 의미와, 대칭에서 벗어난 비구조적 실루엣과 의복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며, 위치와 전위, 수직·수평적 구성선의 거부, 형태의 왜곡과 과장등의 외적 형식으로 구성된 것을 코드화 한 것으로 분석²⁶⁾되고 있다. 즉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이성 중심주의 해체, 합리적인 이성을 소유한 인간주의적 세계관의 해체, 열린 사회·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 언어와 기호의 재현에 대한 믿음의 전복으로써 현전의 형이상학을 좌절시키고 그의 의미체계를 전복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무원칙적, 비논리적, 역설적, 모호함, 혼돈의 특징에 의한 상호 텍스트성, 탈중심, 탈구성, 불확정성 등의 양식으로 패션에 표현²⁷⁾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90년대 패션에 있어 <그림 1>은 하나의 원통형으로 인체를 인지 할수 없는 모호한 형상으로 이세이 미야케가 추구

<표 4> 선행연구의 동양적 특성에 관한 자료

선행 연구	동양적 특성 (조형성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 도출된 특성
채금석(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2004)	단순미, 빈곤미, 불균형의美, 모호성	첫째: 비균제성 둘째: 불완전성 셋째: 불균형성 넷째: 단순성 다섯째: 공간성
조재연(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시크 스타일의 미적 특성 연구, 2006)	장식적특성: 공간성, 중첩성, 관능성, 상징성 비장식적 특성: 단순성, 간소성, 평면성, 개방성	
임지영(20세기말 공사상으로 표현된 젠(zen)스타일, 2002)	불균제성, 빈곤성, 자연성	
이상례(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1994)	평면형과 개방형, 겹쳐입기와 홀입기, 비대칭과 대칭	
이혜현(현대 패션에 나타난 카오스적 현상에 관한 연구, 2007)	비예측성, 불안정성, 자기 유사성, 공간성, 비평형성	
고명신(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현대 패션의 동양적 이미지 연구)	내재적특성: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탈구성, 불확정성 외재적특성: 노출, 파괴, 빈곤, 분해, 분석	
채혜숙채금석(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2008)	면적활용의 여유성, 단순 평면성, 자연 친화성, 색채의 절제성	



<그림 1> Issey Miyake 1990 s/s³⁹⁾



<그림 2> Dolice& Gabbana 91 f/w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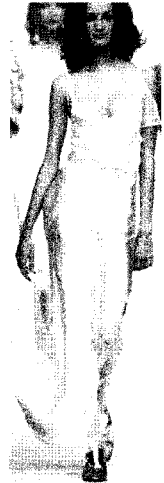
<그림 3> Koji Tatsuno f/w 93-94⁴¹⁾



<그림 4> Martin Margiela 1990 s/s⁴²⁾



<그림 5> Comme Des Garcons 91 f/w⁴³⁾



<그림 6> John Galiano 92 s/s⁴⁴⁾



<그림 7> Issey Miyake 1990 s/s⁴⁵⁾



<그림 8> Cerruti 1990 s/s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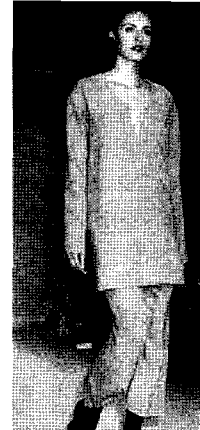
<그림 9> Yohji Yamamoto, 93-94 f/w⁴⁷⁾



<그림 10> Helmut Lang 1990 s/s⁴⁸⁾



<그림 11> Maurizio Galante 92 s/s⁴⁹⁾



<그림 12> Balenciaga 93-94 f/w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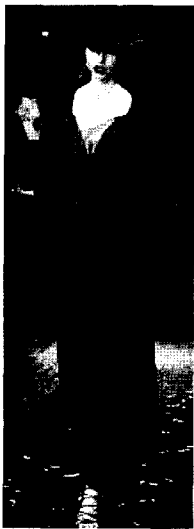
<그림 13> 공간 Romeo Gigli 1990 s/s⁵¹⁾



<그림 14> Issey Miyake 1990 s/s⁵²⁾



<그림 15> Purificacion Garcia, 92 s/s⁵³⁾



<그림 16> Jean-Paul Gaultier, 2000-2001, f/w⁵⁴⁾



<그림 17> Atsuro Tayama, 2001 s/s⁵⁵⁾



<그림 18> Mariella Buruni, 2000-2001, f/w⁵⁶⁾

하는 동양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림 2>는 형식이 없이 잡아 묶어 놓은 형태로 비정형적인 면을 취하고 있으며 <그림 3>은 상체위에서 끈으로 잡아 묶는 형태로 하나의 거칠고 정된 되지 않은 하나의 끈이 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패션에 있어 <그림 16>은 장 폴 고티에가 추구하는 속옷의 겉옷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여밈은 분판과는 다른 이질적인 소재로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잡아 묶어나가고 있다. <그림 17>은 전체적인 윤곽이 불분명하고 옷자락의 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갈지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풀이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조형성은 복잡하고 비주기적인 무질서를 통해 동양의 포용과 열린 사고에 의한 확대된 질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불완전성

‘와비(わび)’ 미학으로 회자되는 청빈(淸貧)과 절박한 실체를 아름다움으로 보는 미의식에는 일본인의 자연에 대한 애뜻한 서정적 감흥, 즉 아와레의 ‘애뜻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어 중세의 유행, 유심의 미의식, 도가사상, 선의 부정의 논리와 융합되어 탄생된 ‘와비’의 미학에서 주지할 점은 소위 ‘귀족풍의 청빈’이라고 하는 불락한 귀족의 반항적 미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의식에는 운명에 대한 일종의 체념이 스며 있으며,²⁸⁾ 이는 현대 동양적 패션에 반영되어 천의 삼아찌기, 해집, 꼬임, 자른채 두기, 감기, 걸쳐입기, 뒤집기, 불규칙적인 헴라인, 주름잡기, 매듭짓기 등 해체적인 빈곤미의 전형적인 반꾸밈적 구성으로 유럽 패션계에 서구 전통의 오토쿠튀르에 의한 구성의미에 상반되는 안티쿠튀르 패션으로 등장하여 강한 충격을 주었다.²⁹⁾ 또한 복식의 외척보다 내척을 보다 화려하게 장식하는 의도적 빈곤미가 연출되는 것으로³⁰⁾ 불완전성을 통해 고도의 계산된 완전미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90년대 패션에서 <그림 4>는 무색의 너비가 있는 봉제되지 않은 듯한 끈으로 상체를 아슬아슬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림 5>는 스커트의 질감이 구김 그 자체여서 아직 미완성의 정형적인 측면에서 아직 미완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양상을 취하고 있으며, <그림 6>은 한쪽 어깨 부분만 간신히 잡아 매고서 한쪽은 봉제되지 않은 채로, 스커트의 헴라인은 비스듬히 잘려져 실수가 담긴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2000년대 패션에서 <그림 18> 역시 스커트의 질감이 구김 그 자체

이며 옆선도 정확한 길의 방향에 따라 봉제가 되지 않고 비스듬히 처리되어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림 19>는 안나 수이의 작품으로 울퉁기의 일종으로 헴라인이 처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패션은 모두 반 꾸밈 미학의 한 형태로 미완성을 통해 완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3) 불균형성

동양 복식은 그 형태에 있어 북방 유목 민족계의 카프탄(Caftan, Kaftan)형으로 분류되는데, 카프탄은 앞이 트이고 길고 어깨선에서 직선소매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때로는 허리끈으로 잡아 매어 입을 것으로 서양의 복식학자들은 카프탄의 발생지인 터키 지역 뿐 아니라 몽골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의복이 카프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³¹⁾ 평면형의 카프탄형으로 특징지워지는 동양복식의 구조는 몸의 곡선을 강조하기 위해 복식 내부의 구성선을 사용하거나 천을 작은 조각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며, 복식은 천으로 몸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가슴과 허리선을 무시하는 직선형으로 대체로 좌우 비대칭이다. 자연계에서는 비대칭형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 비대칭인 동양복식에서는 감성적이며 인간적인 친근감을 맛볼 수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는 자연미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으며 여유롭고 넉넉한 형식의 비대칭 여밈을 가진 동양복식은 유교, 도교, 불교 등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정신적 전통의 맥락 속에서 미의식을 공유³²⁾하고 있다. 먼저 <그림 7>의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에서 한쪽 팔은 정사으로 제 위치에 와 있지만 다른 쪽 팔은 옷 속에 숨겨져 있으며 전체적인 실루엣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갈라 부분에 있어 한쪽은 넓게 펼쳐져 있는데 반해 다른 쪽은 짧게 세워져 있으며 몸 판 실루엣이 한 방향을 향해 모아져 있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고, <그림 9>의 요지 야마모토의 의상에서도 왼쪽 방향으로 옷감을 더 많이 구성함으로써 인해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고 있다. 다음 2000년대에서 <그림 20>은 사선 방향으로 절개를 해서 뒤쪽으로 재료를 더 남기고 있고 <그림 21>은 인도의 사리를 연상케 하는 어깨에서 가슴 옆선을 향한 대각선 방향으로의 넥라인의 전개와 허리 부분에 한쪽으로 만 스커트 반쪽 만한 천을 덧대어 놓았다. 이상과 같은 불균형은 의상에 있어 역동성의 미의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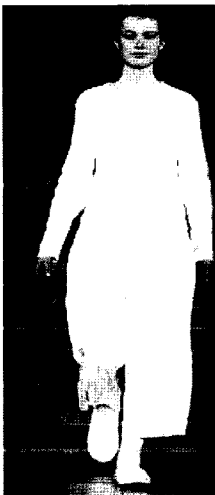
<그림 19> Anna Sui, 2000-2001, f/w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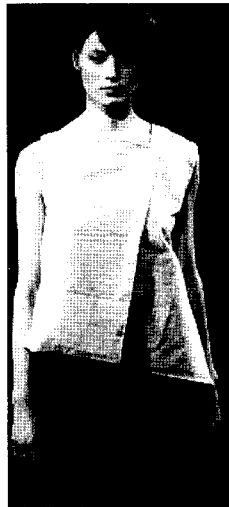
<그림 20> Genny, 2000-2001, f/w⁵⁸⁾



HUGO BOSS
<그림 21> Hugo Boss, 2001 s/s⁵⁹⁾



<그림 22> Issey Miyake, 2000-2001, f/w⁶⁰⁾



<그림 23> yohji Yamamoto, 2001 s/s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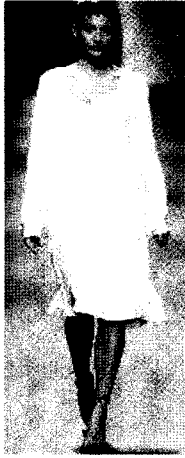
<그림 24> Yves Saint-Laurent, 2000-2001, f/w⁶¹⁾

양 복식의 우임이나 좌임의 비 대칭의 역사 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단순성

종교적 공간에 통하는 ‘꾸미지 않은’ 미의 계보로서의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후에 떠오르는 미의 이념은 형태에 있어 엄격한 절제와 제거를 통한 최소한의 면적, 최소한의 선으로 구성되는 단순미로 집약된다. 반 꾸밈 문화의 토대를 이룬 선에는 도가와 노자와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는데 노자의 문화 개념은 “문화는 생화(生化) 되어야지. 문식(文飾)이 될 수 없

다”고 하면서 문화의 본질은 생명의 창조에 있다고 하였다. 노자는 생화되는 문화의 대안으로 소(素)와 박(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 어법의 “소박(素朴)”이 바로 노자에서 유래 하였다. 여기서 소박은 단순성(Simplicity)으로 번역 도리 수 있는데, 이는 원초주의(Primitivism)이며,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라³³⁾ 할 수 있다. 먼저 90년대 복식에 있어 <그림 10>은 부드러운 신축성이 가미된 재료로서 절개선도 없는 옷감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극히 단순한 면이 보여지고 있으며 <그림 11>은 동양의 계절기 용 모시나 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아주 간단한 속치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12>는 동양의 평



<그림 25> Salvatore Ferragamo, 2001 s/s⁶³⁾

면 전개형 좌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단색으로 이루어진 무장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2000년대 패션으로 <그림 22>는 신발까지 무색으로 통일 함으로써

화면 전체를 여백으로 처리한듯한 조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그림 23>은 요지 야마모토의 패션으로 앞 여밈 부분만 사선처리 하였을 뿐 다른 꾸밈과 장식은 일체 배제 하였으며 옷감의 색상도 표백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에크루(ecru)한 색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 장식은 동양적 방식으로서의 미니멀리즘이라 할 수있다.
















5) 공간성

동양 복식의 특성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으로 공간성과 평면성³⁴⁾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빅룩(big look)을 이루는 요소로서 동양의 중심 사상중의 하나의 여유로움이다. 노자는 도(導)는 빈 것을 쓰되 팍 채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양의 미는 텅 빈것을 쓰되 팍 채우지 않는다. 따라서 기나긴 압축의 시간도 없으며, 세기(細技)의 욕구·도구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다.³⁵⁾고 하였듯이 인체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 정

<표 5>. 동양적 패션 이미지와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의미

조형적 특성	그림자료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의미
비균세성				복잡하고 비주기적인 무질서를 통해 동양의 포용과 열린 사고에 의한 확대된 질서의 개념
불완전성				반 꾸밈 미학의 한 형태로 미완성을 통해 완성을 추구

<표 5> 동양적 패션 이지와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의미

조형적 특성	그림자료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의미
불균형성				역동성의 미의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양 복식의 우임이나 좌임의 비대칭의 역사를 내포함
				
단순성				동양의 無를 통한 미니멀리즘의 추구
				
공간성				자연의 섭리에 벗어나지 않고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동양의 '빔'의 정신이 내포됨
				

신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양의 가치관은 인체를 추상적으로 인지 하였고, 전체적으로 승려나 구도자를 연상시키는 느슨한 재단으로 부드럽게 늘어지는 소재로 드레이프성을 강조하거나 사선형 실루엣³⁶⁾을 사용한다. 이러한 공간성을 위한 재단법으로는 평면재단을 들 수 있으며, 동양 복식의 기본형은 인체에 밀착시키기 위한 내부의 구조적인 선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³⁷⁾ 동양은 초 자연적으로 이상

을 표현 하였고, 실제적인 육체의 비례를 무시했다. 이러한 면으로 인하여 서양 복식에 비해 인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부드러움과 편안함이 추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90년대에 있어 <그림 13>은 재료 자체부터 벌키(bulky) 한 부드러운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주름이 형성될 정도로 재료에 넉넉함을 두었고 <그림 14>는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은 주름에 의해 인체사이에 일정한 공간 가지는 형태로 이것은 일본

의 주름잡힌 종이 공예의 형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자국 특유의 직관과 관습의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³⁸⁾ <그림 15> 역시 재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인체에 밀착되지 않은 풍성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00년대 패션에서 <그림 24>에서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넉넉한 옷감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주름이 의상 전체의 흐름을 형성하듯 벨트로 허리 처리하지 않았으면 활동하기 불편 할 정도의 풍성함을 이루고 있다. <그림 25>는 전체적으로 A라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의상으로 시원한 깊은 보트(boat)형 넥라인에 긴 소매 처리 풍성한 헴 라인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성은 자연의 섭리에 벗어나지 않고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동양의 '빔'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이제 서구를 비롯한 세계는 동양을 서구의 주변이나 비서구로 인식하던 데에서 벗어나 인식 체계의 전환과 함께 동양의 표면적인 외형에 아울러 동양의 문화와 역사, 철학등 내적인 접근까지 적극적인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동양을 연구하고 동양적 이미지의 가치를 확립할 필요를 느껴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동양의 개념과 동양의 범주를 알아보고,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다섯가지 특성 비균제성, 불완전성, 불균형성, 단순성, 공간성이 도출 되었다.

첫째는 무원칙적, 비논리적, 역설적, 모호함, 혼돈의 특징에 의한 상호 텍스트성, 탈중심, 탈구성, 불확정성 등의 양식으로 패션에 표현되어 복잡하고 비주기적인 무질서를 통해 동양의 포용과 열린 사고에 의한 확대된 질서의 개념이라 할 수있는 비균제성이다.

둘째는 천의 잡아찢기, 해집, 꼬임, 자른채 두기, 감기, 걸쳐입기, 뒤집기, 불규칙적인 헴라인, 주름잡기, 매듭짓기 등 해체적인 빈곤미의 전형적인 반꾸밈적 구성으로 유럽 패션계에 서구 전통의 오프쿠튀르에 의한 구성의미에 상반되는 안티쿠튀르 패션인 반 꾸밈 미학의 한 형태로 미완성을 통해 완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있는 불완전성이다.

셋째는 의상에 있어 역동성의 미의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양 복식의 우임이나 좌임의 비 대칭의 역사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있는 불균형성이다.

넷째는 종교적 공간에 통하는 '꾸미지 않은' 미의 계

보로서의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후에 엄격한 절제와 제거를 통한 최소한의 면적, 최소한의 선으로 구성되는 소위 최소주의(Simplicity)의 추구로서 단순성이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 정신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양의 가치관으로 인체를 추상적으로 인지 하여, 전체적으로 승려나 구도자를 연상시키는 느슨한 재단을 통한 공간성이다.

이와 같이 다섯가지 특성에 있어 동·서양 디자이너를 두루 섭렵하여 고찰한 결과 이제 동양적 이미지를 패션에 반영하는데 있어 90년대 보다는 동양에 대한 선입견에서 보다 더 탈피하여 2000년대에는 동양의 전통과 철학이 패션에 더 반영되고 있고 대등한 입장 하에 절충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본 연구가 동양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선행 연구로서 참고 자료가 될 수있기를 바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고른 분야를 통해 심오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참고문헌

- 1) 채금석(2003). 「세계패션의 흐름, 지구문화사」, p. 3.
- 2) 최혜정(1999).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현사이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
- 3) 「21세기 원색대백과」(1999). 태극출판사, 제8권, p. 301.
- 4) 김지연(1999). 에스닉에 의한 텍스타일 디자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8, p. 4.
- 5)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1983). 제 21권, 서울: 동아출판사, p. 286.
- 6) 조영아(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모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7)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CLARENDON PRESS, OXFORD.
- 8) 채금석(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 꾸밈 미학, 한국복식학회지, p. 131.
- 9) 안유정, Cross-Cultural Product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10) 두산 세계 대백과, 재인용 조재연(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시크 스타일의 미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11) 「21세기 원색대백과」, 앞의책, p. 445.
- 12) 권하진(2005). 아시아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 13)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269.

- 14) 송명진(1991).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15) 조재현, 앞의책, p. 10.
- 16) 채혜숙, 채금석(2008).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p. 68.
- 17) 柳喜卿著,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p. 15.
- 18) 이순홍의 8인 공저, 세계복식과 패션 정보, p. 20.
- 19) 채금석, 앞의책, p. 268.
- 20) 이순홍의 8인 공저, 앞의책, p. 19.
- 21) 김지연, 앞의책, p. 4.
- 22) 채금석,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앞의책, p. 138-141.
- 23) 임지영(2002). 20세기말 공사상으로 표현된 쯤(zen)스타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00.
- 24) 조재현, 앞의책, p. 22-43.
- 25) 채혜숙·채금석(2008).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p. 63.
- 26) 한경미(2004). 일본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에서 나타난 Zen-style에 관한 연구, p. 13.
- 27) 이혜현(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카오스적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28) 채금석, 현대 일본 패션에 나타난 반꾸밈 미학, 앞의책, p. 139.
- 29) 채금석, 「세계패션의 흐름」, 앞의책, p. 176.
- 30) Fashion News, Takada Kenzo, 96 f/f collection, 채금석 앞의책, p. 139.
- 31) 고복남 (1987). 「한국복식의 유형과 양식」, 서울 집문당, p. 121.
- 32) 이상례(1994).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4-25.
- 33) 김용욱(1999). 「노자와 21세기 下」, 통나무, p. 67, 재인용 채금석, 앞의책, p. 138.
- 34) 채혜숙·채금석, 앞의책, p. 68-69.
- 35) 이상영(2006). 'Equivalent' 사진개념을 통한 한국적 십상 사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0.
- 36) 최혜정, 앞의책, p. 57.
- 37) 이상례, 앞의책, p. 16.
- 38) 채금석(1999). 「패션디자인 실무」, 교문사, p. 96-97.
- 39) Collections, Paris, London.
- 40) Fashion News, 91 f/w, p. 147.
- 41) Mode et Mode, 93-94 f/w p. 64.
- 42) Collections, Paris, London
- 43) Fashion News, 91 f/w, p. 84.
- 44) Fashion News, 92 s/s p. 8109.
- 45) Collections, Paris, London.
- 46) Collections, Paris, London.
- 47) Mode et Mode, 93-94 f/w, p. 34.
- 48) Collections, Paris, London.
- 49) Fashion News, 92 s/s p. 89.
- 50) Mode et Mode, 93-94 f/w, p. 102.
- 51) Collections, Paris, London.
- 52) Collections, Paris, London.
- 53) Fashion News, 92 s/s p. 184.
- 54) Passerella di DONNA, 2000-20001, p. 186.
- 55) COLLEZIONI, 2001, p. 308.
- 56) Passerella di DONNA, 2000-20001, p. 25.
- 57) Passerella di DONNA, 2000-20001, p. 304.
- 58) Passerella di DONNA, 2000-20001, p. 75.
- 59) COLLEZIONI, 2001, p. 101.
- 60) Passerella di DONNA, 2000-20001, p. 226.
- 61) COLLEZIONI, 2001, p. 320.
- 62) Passerella di DONNA, 2000-20001, p. 212.
- 63) COLLEZIONI, 2001, p. 33.